스님들의 존엄한 노년을 위해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오랜 세월 선원에서 수행하다 사찰을 창건하고, 30년 가까이 가람수호와 포교에 매진해 온 비구니 어른 스님 두 분이 계신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조용히 병구완하며 지낼 소박한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찰을 이어 맡을 원력 있는 스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 올 스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별도의 거처를 마련한다는 사정을 알기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필자가 아는 70세 이상 어른 스님의 처소는 제각각이다. 대중처소에서 지내거나 상좌가 모시기도 하지만, 홀로 사찰이나 토굴을 지키거나 불교계 요양시설에 머물기도 한다. 심지어 아파트나 일반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스님도 있다.

일반 사회의 어르신들은 선택지가 다양하다. 자택 통합돌봄 서비스나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거나 필요하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의지할 수도 있다. 반면 스님들의 노년기와 생애 말기는 어떠한가. 출가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힘쓰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승가의 보호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며 생을 마무리할 것이라 여겨 왔다. 은사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곁에서 시봉하며 함께했던 필자에게 이러한 수순은 당연한 것이었다.

종단 차원 체계적 제도 기반 마련 필요
교구별 전담 인력, 노후수행관 마련하고
노후수행관 운영 사찰 소임 제도화해야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노구의 스승 곁을 지킬 권속도, 노후를 의지할 대중처소도 충분하지 않다. 외호대중 역시 넉넉하지 않다. 결국 노년을 보낼 거처와 삶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많은 스님들이 평생 가람수호와 전법에 매진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채 그 시기를 맞이한다는 점이다.

현재 조계종 승려의 약 32%가 65세 이상이다. 20년 뒤 그 비율이 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종단 토대이자 전법 주체인 승가가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교구별로 승려복지를 담당하는 소임자가 고령·독거 스님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구마다 재직승과 재적승을 돌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비구·비구니 노후 수행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도시 근교에 토지를 보유한 말사나, 점차 비어 가는 사찰 시설을 보완해 노후 수행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정 기간 해당 수행관을 운영하는 사찰에서 소임을 맡도록 제도화한다면 사찰은 소임자 수급의 어려움을 덜고, 노스님들은 승가의 보호 속에서 여법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스님들에게는 늙음과 병듦,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 자체가 살아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

종단의 의지와 교구별 전담 인력, 노후 수행처와 요양원이 마련된다면 평생 가람수호와 전법에 헌신해 온 스님들이 기쁘게 소임을 내려놓고 승가의 보호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존엄하게 늙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출가에서 임종까지 승려의 완전 복지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누구나 볼 권리, 보편적 시청권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국민 다수가 동시에 시청하며 공동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의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보편적 시청권이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나 문화 이벤트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스포츠 이벤트를 단순한 상업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에 가까운 콘텐츠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특정 유료 플랫폼이나 일부 이용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가능한 많은 국민이 주요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로 이해된다. 이는 문화 향유권과 미디어 공공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방송법과 관련 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 행사 개념을 운영하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는 국민적 관심 행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 플랫폼을 통해 중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중계가 특정 유료 플랫폼에 독점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공성과 시장 논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스포츠 중계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방송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OTT 플랫폼이나 대형 미디어 기업이 중계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 이벤트가 특정 플랫폼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정 플랫폼 가입자만 보는 스포츠 중계
해외선 무료 방영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우리나라도 보편적 시청권 위한 제도 要

국내의 경우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은 이러한 우려를 다시 촉발시켰다.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JTBC와 지상파 방송 3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 접근권이 크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계 올림픽이 국민적 축제로서의 빛을 잃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올림픽, 월드컵, 윔블던 결승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목록으로 지정하고 무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무료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도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보편적 접근 기준이 필요하다. 동시에 스포츠 중계권의 상업적 가치와 국민의 시청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보편적 시청권의 핵심은 결국 누구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 이벤트를 지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중계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문화적 순간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중요한 스포츠 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社 說

1366 상담 노동자 호소 외면 말아야

1366.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다. 365일 24시간 운영돼 피해 여성이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국가 공공 안전망이자, 관계 기관과 연계해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대응 창구다.

그런데 여성 인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3월 12일, 1366 서울센터 상담원들은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성 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상담하고 싶다"고 외쳤다.

이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3교대 근무 제도 개선, 인권침해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년 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침해와 고용 불안을 호소했으나,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수탁기관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복잡한 위탁 구조 속 책임 공방 지속
사회 약자 보듬는 불교계 실천 절실

상담 노동자들은 3교대 근무 속에서 한 달에 많게는 7~8차례 밤샘 근무를 한다.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회복 시간도 없이 다시 업무에 투입되는 일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근무 형태가 인체 리듬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장 상담사들은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높은 노동강도와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상담원의 잦은 이직과 인력 공백을 야기하고, 이는 곧 상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복잡하게 얽힌 책임 구조다. 1366은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가 운영 주체지만 지역센터는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돼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각 기관은 서로의 소관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사이에서 현장의 노동환경은 방치됐다.

이 문제는 단지 한 기관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여성폭력 대응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사회적 과제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적정 인력 확보와 고용 안정, 합리적인 교대근무 체계 마련, 인권침해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불교사회복지를 강조해 왔다. 새해 첫날에는 소외 이웃과 함께 108배를 올리며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발원했고, 노동·인권·빈곤 문제 등 우리 사회 현안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사말에서도 "무량한 자비심으로 소외된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조계종이 더욱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은 불교사회복지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종단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3월 1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3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3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